

음악의 공감각적 시각화 표현 연구 - 황병기 가야금곡 <미궁>의 시각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ynesthesia visualized expression of music

- Focusing on visualization of The < The labyrinth > in Mr. Hwang Byung Ki's kayakeum music -

서명인

한성전문대학교 컴퓨터그래픽학과

Suh, Young-In

Dept. of Computer Graphic Design, HSTC

• Key words : visualized expression of music. sensibility. Visualization. Design Process,

1. 서론

본 논문은 현대 디지털 시대의 모든 예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미지의 단순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이 아닌 공감각적 연상에 의한 전이의 상호 연관성을 발견하고 형태적 형식의 전환으로 인한 발상이 동일한 심미적 탐구와 해석으로 접근 가능함을 증명함에 있다. 더불어 완결성의 문제에서 공간적 순수 형태가 시각적 형태로 전환됨에 의해 알게 되는 기본 특성에 기초하여 보편성을 획득하고 이미지의 의미전달의 수단임을 알게 해 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적 다양한 시도와 접근을 통해 감각의 전이를 이루는 황병기님의 작품으로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속의 상징화된 커뮤니케이션의 감성 교류를 음악에서 시각화를 표현하여 시각적 해석과 공감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 디지털시대의 시각화의 의미

디자인 도구의 폭넓은 기술과 보급은 현시대의 이미지 과포화상태를 만들고 이는 인간성 상실과 소외, 언어순환, 이미지 모방 등 디지털 시대가 갖는 문제점들이 시각적 이미지와 무관할 수 없으며 또한 이미지가 갖는 무한한 힘과 의미는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미지는 개인적 경험과 기억이 사물의 객관적 의미에서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면서 자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상황과 경험에 의해 변형 가능한 이미지로 시각화를 거쳐 의미부여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각화는 감각의 전이(轉移)를 의미하며, 그 이미지는 인간화된 상을 말한다.¹⁾ 또한 디지털 시대의 이미지는 그 살아있는 생명성의 영향과 효과가 개인별 존재감과 동일한 내용의 표출로 그 분리의 애매함이 더욱 커지면서 이미지에 대한 집착은 더해지게 되었다. 이는 인간의 창조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문화 현상과 상징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언어의 시각적 암호체계의 상징화(Symbolization)²⁾ 정보를 교류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이미지의 홍수 시대인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감각의 전이(轉移)로서 시각화는 음악과 미술이 눈으로 듣는 듯한, 그리고 귀로 보는 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인간의 존엄과 감정의 교류 할 수 있는 시각화된 이미지의 합당한 시도가 요구된다.

3. 공감각적 전이(轉移)

우리가 환경에서 받는 물리적 힘을 탐지하여 신경신호로 변환

시키는 과정을 감각(Sensation)이라고 하며, 감각을 선택하여 느끼게 하는 것을 지각(Perception)이라고 한다. 공감각(Synesthesia)은 감각의 한 수용세계에 자극을 주었을 때 직접 감각계통에 따르는 반응 외에 다른 감각계통의 감성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현상³⁾이라고 한다. 이는 여러 감각은 서로 다른 감각이 감성형성 작용과 다른 감각 유도를 동시에 수용, 융화하여 감각계통의 반응 외의 다른 감성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즉 귀를 자극하면 소리와 함께 시각적 색상도 느낄 수 있고 후각과 함께 색상도 느낀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감각의 공감각적 전이와 지각이 내재된 감정의 경험 속에서 살고 있으며 어떠한 감각적 연관성 없이도 다른 감각과의 결합과 일체를 느끼는 공감구조를 가지고 더욱 빠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4. 음악의 공감각적 시각화

음악적 자극은 직접적인 쾌감이며 이는 교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감정적 수용과 이입을 통해 체험으로 각인된다는 단순히 듣는 것에서 오감의 상호작용으로 정화 가능함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수용자는 인지된 감정을 외부적으로 표출될 때 그 음악적,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등의 메시지 전달로 환원되어 전달되어 지는 것이다. 시, 청각 반응을 공유함으로 시각적인 것을 음악적으로, 음악적인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칸딘스키나 클레, 들로네 같은 화가들은 음악적 영감을 화폭에 담기도 하였으며 작곡가 쿤테, 술러, 쇤베르크는 그림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아 작곡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는 무의식적이고 감정적인 재창조의 정신적 작용에 의한 교감이며 느낌으로 오는 교감은 단순히 청각적인 기능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이와 같이 음악과 시각의 표현방식과 방법은 달라도 유사적 의미와 내적 목적을 가지므로 충분한 변환과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시각에서 음악으로의 발상이나 음악에서 시각으로의 발상은 본질적 심미적 탐구와 해석을 중점으로 하여 감각의 전이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전이를 통한 감정이입은 스스로의 감성을 표현 대상에 일치시키는 감상행위를 말하며 주관적이고 심미적 의의와 판단이 가능케 된다. 따라서 감정이입도 궁극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성을 인간 감성의 틀로 재구성하고 재조정하는 각색 행위의 일종인 것이다. 즉 시각적 형태가 지닌 보편적인 성질의 도구들을 선택, 생략, 강조, 재구성 등의 각색을 통해 내재되어 있는 어떤

1) 함윤섭, 디지털 시대의 본다는 것의 의미, 서울디자인포럼학회 디자인학 연구집, 7.

2) 윤재성, 퓨전 디지털미디어시대의 타이포그래피 연구, 여수대학교.

3) E.H.Gombrich, 예술과 환영, 차미레 역, 열화당, 1992

의미라는 대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미지 창출'은 표현 수단이며 어느 예술 장르에 구분 없이 혹은 음악에서 시각화로 시각에서 음악화로 감정적 전이를 통해 인간 해석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즉 고도의 함축적이고 상징, 비유, 환유, 암시 등으로 구체적 혹은 추상적인 연관성에 따른 연상 작용으로 공감각적 접근이 가능한 수단을 선택할 뿐 사실상 심미적 의미는 같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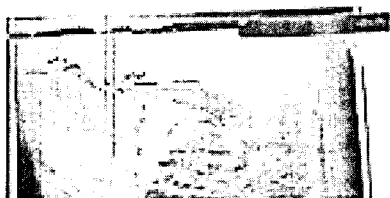
5. 황병기 가야금곡 <미궁>의 시각화

작품 미궁은 가야금과 현대무용가 홍신자의 인성(人聲)으로 초연되어 커다란 충격으로 한국 음악계에 영향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모더니티이며 정신과 귀를 동시에 즐겁게 하는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품 미궁은 활을 때려 진동하는 음향으로 시작하여 초혼(招魂)하는 인성이 나타나 가야금과 인성의 대화로 시작한다.

그리고 음의 음역이 상승, 메아리, 여운, 절규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듯 실제 인성과 대화가 오가며 가야금의 소리가 마치 교감을 이루듯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멈추다가 가볍게 가야금소리와 함께 반야반경의 주문의 점묘적 반주의 흐름으로 끝이 난다. 작품 미궁은 인성의 목소리가 약기가 되어 가야금과 어울려 너무나도 조화로운 음악을 이뤄내고 있으며 오히려 그 내면적 깊이와 갈등을 실험적인 시도로 표현함에 손색이 없다. 그 창의적 표현과 실험적인 시도는 과히 음악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에 틀림없으며, 인간, 악기, 정적 등의 모든 것들이 감정적 전이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성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는 묘한 리듬과 박자를 이루며 가야금과 장구채 등으로 각각의 색과 음역의 깊이를 달리하며 조형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곡의 시각화는 전체적인 저채도의 색과 극적인 강조와 정적의 여백의 대비로 표현될 수 있으며 모노톤의 흐름 속에 급박한 박자의 조형요소의 어울림으로 서로 엇갈리듯 대화하는 인성과 가야금의 시각화에 맞다 하겠다. 이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닌 공감각적 연상에 의한 전이로 시각적 형태의 발상으로 동일한 예술적 생명력과 공감각적 의미전달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음악과 시각의 공통된 일치점의 증명하도록 다양한 공간과 색감, 리듬감, 선, 등으로 음악적 생명력을 시각적 생명력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미궁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며 인간 감정의 극대화를 원근감 있는 색감과 요소로 표현할 수 있으며, 악기와 인성의 리듬은 중요한 시각적 감정 전이에 요소가 될 것이다. 인간 감성의 살아있는 생명성을 음악의 시각화 표현함으로 동일한 교감과 상징화된 커뮤니케이션의 감성적 해석이 가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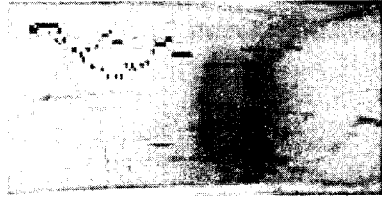
6. 작품



<작품1> 거친 텍스처어로 느리고 거대한 운동감과 시선의 흐름을 나

4) Jocelyn clark, 김세중 역, 미궁,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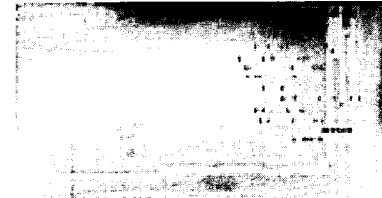
타내어 다양한 질감과 소재의 변화 속에 통일감이 보이도록 제작



<작품2>가야금의 최저현의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의 따스하면서 흘날리는 바람소리 같은 음색과 미궁의 암흑으로 들어가는 듯한 정적이 비장하면서도 가벼운 음악으로 우리에게 감정 전이를 느끼게 한다.



<작품3>곡 전체에서 가장 발랄하고 활기찬 리듬으로 연주되며 가꿈 인성의 웃는 목소리와 튕기는 가야금의 활기까지 느껴진다.



<작품4>가꿈 보이는 다른 음색과 소리를 통채하는 거대한 리듬의 제한을 기하학적 직선과 튀진 않으나 다른 색채로 은근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우울하고 처절한 음색을 색채로서 표현하였고 강하고 어두운 타원의 덩어리로 미궁의 상징적 표현으로 대신하였다.

7. 결론

시각화 표현에 부재된 인간의 생명성 즉 감정의 전이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시각적 흐름을 지배하는 청각과 시각의 기능을 넘는 문제인 것이다. 그리하여 돌발적인 우연과 발생을 신봉하는 우리 세대에게 시각적 스타일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기술적 허용이 아닌 생명성을 표현하는 미래의 예술적 디자인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이러한 생명성의 예술적 디자인의 내면의 재정립과 시각언어와 청각언어의 공감각적 감정 전이를 연구함은 미래 디자인을 보다 단단하고 감정 해석의 폭을 넓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주리라 사려 된다.

참고문헌

- 백대웅, 전통음악에 나타난 한국인의 감성, 민속문화연구 30집,
- 윤재성, 퓨전 디지털미디어시대의 타이포그래피 연구, 한국 디자인포럼 7호, 2002
- 이문삼, 음악과 정서, 충신대학 편집위원회. 1990
- 이효일, 매스 미디어와 시각 디자인, 공간지. 1997
- 이인웅, 화가 폴 클레의 작품에 나타난 음악적 요소, 공간지. 1979
- 황병기,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 풀빛. 1991